

동화 당선소감

“내 안의 동심 실컷 들려주고 싶어”

당선이라니.....!
아이처럼 팔짝팔짝 뛰다가 좀 멧쩍어졌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세상의 부끄러운 어른 중 한 사람이니까 아이들에게는 죄인인 셈입니다. 아동학대, 아동을 상대로 한 과립치한 성범죄... 뉴스를 볼 때마다 아, 오늘도 지켜주지 못했구나!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왜 세상은 점점 아이들이 살기에 가혹한 곳이 되어가는 걸까? 어느 하루도 묻지 않고 지나가게 내버려두질 않습니다. 중국의 어느 사상은 그랬지요. 동심을 잃으면 참된 마음을 잃는 것이고, 참된 마음을 잃으면 참된 사람을 잃는 것이라고요. 아이는 바로 사람의 처음이지요. 어른들이 동심을 잃을수록 아이들을 잃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내가 아이였을 적엔 언제 많이 웃었지?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밥 먹고 놀아라! 하고 엄마가 부를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가 끈끈한 내 손을 아랫목에 꼭 넣어줄 때, 아버지가 낱까 지난 달력으로 딱지를 붙여줄 때...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출처 없는 할머니의 옛날이야기가 최고였습니다. 특자인 제 반응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줄거리였지만 분명한 건 그 즉흥적인 창작에도 기승전결이 있었고, 제가 감동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게 동화는 그렇게 왔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건 아이들에게 제가 경험한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말씀이었지요? 제 마음속에서 어린 아이가 다 빠져나가기 전에 이런 속재를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줘야겠습니다. 나쁜 아이들 이야기, 아픈 아이들 이야기, 배고픈 아이들 이야기, 외로운 아이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저도 좀 실컷 웃어야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는 심사위원 선생님! 부지런히 이야기를 짓겠습니다. 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님들, 학우들 모두 감사합니다.



서귀옥

- ▲1966년 강원도 속초 출생
- ▲우석대 문창과 졸업
- ▲우석대 문창과 대학원 재학 중

시

몬드리안의 담요

배세복

성큼성큼 들어와 붉은 사각형을 담요에 던지며 그가 말했다 너희들에게 어울리는 빛이야 그때부터 그는 우리집 벽에 살았다 어느 해 나는 내 서재를 한 번도 열어주지 않으면서도 간신히 아내의 장롱 속에 들어간 적 있다 캄캄했다 오래 전 걸어두었던 희망 같은 단어가 곰팡이가 슬기 시작했다 그날 그는 검푸른 색깔을 마구 칠했다 살짝 허차는 소리가 들렸다 그 무렵 나는 회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유사한 색깔의 연속은 불안을 가져온다 마치 잘못된 취진 목록과 타일의 무늬처럼, 그리하여 바람 푸르던 날 우리는 감탄사들을 날려 보냈다 공중에서 흩어지는, 알고 보니 겨우 몇 개 밖에 안 되던 노란 한숨같은 것, 울베에는 어떤 색을 보여줄까 형형색색의 아주 큰 보석을 보여줄게! 그는 한 해에 하나씩 그린 아홉 개의 사각형에 레두리를 치고 있었다 집을 지은 후 귀퉁이를 여러 날 마름질하듯 천천히, 잠이 덜 깨 우리들을 격자무늬로 엮어주며 서서히 벽 속으로 사라져갔다

시 당선소감

“문학과 더 치열한 싸움 이어나갈 것”

당신과 인연을 맺고 두 번이나 십 주년이 지났습니다. 싸움도 못하면서 매일 당신과 싸웠습니다. 어느 해인가 처음으로 싸움을 시작하고 그해 마지막 날, 그간의 내력에 붙게 사각형을 그려 보았습니다. 그 다음해에도 싸움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푸른 사각형....., 그 다음해엔 다시 노란 사각형....., 이렇게 긴 이십여 년을 싸웠지만 승자는 없었습니다. 지친 채 백기를 들려던 오늘, 누군가 싸움의 경과를 알려줍니다. 당신과 저의 싸움에서 하루만 쉬어가도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싸움이 끝난 게 아니겠지요. 이긴 건 더더욱 아니겠지요. 하나 오늘날만큼 사각형 무늬 가득한 담요를 덮고 달콤한 잠을 꼭 자야겠습니다.

하지만 곧 깨어나겠습니다. 다시 저는 당신의 코피를 터뜨리거나 혹은 당신에게 광대뼈가 함몰되도록 얻어맞아 한 장 또 한 장, 여러 장의 담요를 차곡 차곡 포개놓아야 할 테니까요, 사각형을 한 칸 두 칸 다시 채워야 할 테니까요.

시의 길을 처음 열어주시고 묵묵히 지켜봐주시는 구재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한결같이 노란 선배를 걱정해주던 김상호 시인, 청림문학동인회 선배님들과 기쁨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부모님과, 오랫동안 유일한 독자였던 아내의 손도 꼭꼭 잡아보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세상에 발가벗겨 주신 광주일보와 안도현 심사위원님께 깊이 고개 숙입니다. 세간살

이를 집어던지면서라도, 문학과 더욱 치열하게 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배세복

- ▲1974년 충남 홍성 출생
- ▲한남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졸업
- ▲충남여고 교사

동화 심사평

“안정된 문장력·이야기의 힘 돋보여”

응모한 동화를 읽으며 지루하진 않았다. 과학과 다문화이야기부터 판타지까지 소재가 무척 다양했던 까닭이다. 하지만 읽어내면서 공통적으로 안타까웠던 점은 이야기가 너무 친절해서 독자의 몫을 남겨놓지 않았거나 대화체처럼 느슨해서 긴장감이 떨어지는 게 눈에 자주 띄었다. 어떤 동화는 문장력이나 구성 자체는 탄탄했으나 소재가 진부하거나 설정의 보편성을 획득하지 못한 글도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적은 세 편을 골라본다.

“100번째 번신”은 이야기의 발상과 구성 자체가 재밌었고 새로웠다. 철재가 재활용 되어가면서 총알로 태어난 이야기다. 하지만 이야기의 발상에 비해 문장력이나 일개가 촘촘하게 짜여있지 못해 안타까웠다. 문학을 아이디어나 재치만으로 엮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증발”은 왕따를 당하는 주인공이 친구들의 시선에서 물처럼 증발한 판타지동화다.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힘이 당차고 왕따와 증발이라는 은유적 발상에 성공하였지만 주인공이 증발되어야만 하는 간절함이 배어나오지는 않은 건 아쉬웠다. 그보다는 적절한 어휘선택이나 문장 활용에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눈에 띄었다.

“태권브이를 부탁해”는 아스퍼거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을 둔 주인공의 특별한 일상을 그린 동화다. 이 동화의 가장 큰 장점은 문장이 정갈하고 읽히는 힘이였다. 하지만 주인공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보다 형의 행동이나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기대어 깨달아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보다 우위에서 가르쳐려는 어른의 모습이 비친다.

이와 같이 세편 모두 소소한 하자는 있었지만 당선작이 될 자격을 갖춘 작품이기도 했다. 결점이 있거워지만 안정된 문장력으로 이야기를 차분히 이끌어간 “태권브이를 부탁해”를 당선작으로 내놓기로 했다. 축하드린다. 그리고 나머지 두 작품 역시 특별한 소재를 찾아내고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힘으로 볼 때 앞으로 좋은 작가가 될 거라고 믿어본다.



김성범

- ▲곡성 출신
- ▲2001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
- ▲문학동네 어린이문학상 수상
- ▲선진강 도깨비마을 존장

시 심사평

“차분히 읊조리는 시어... 서사·서정적 감각 균형”

시들이 독자에게 애써 말을 건네지 않는다. 어떤 절실한 심장을 향해 하소연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 않고 독자를 설득하려는 마음도 없다. 그저 중얼거린다. 일정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시들일수록 소재가 제한적이다. 일상의 소소한 안쪽을 들춰 보여줄 뿐이다.

분명히 다른 사람이 쓴 시인데 시어가 중복되는 경우가 수없이 많이 발견된다. 이미지를 비틀지도 않고 과격도 옛보이지 않는다. 이런 현상이 시단의 흐름이라면 새로운 시인은 주도적인 흐름을 허파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당선작으로 고른 배세복 씨의 ‘몬드리안의 담요’도 위와 같은 혐의에서 크게 자유롭지는 않다. 하지만 서사적인 것과 서정적인 것을 균형 잡힌 감각으로 배합하는 능력은 다른 응모자들의 시와 뚜렷이

구별된다.

말하고자 하는 것을 언어의 내부로 숨기면서 결국은 할 말을 다 하는 시다. 화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차분한 것은 그만큼 내용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함께 응모한 시들도 단아한 서정의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두텁게 했다.

고현도 씨의 ‘까치의 독후감’은 그리 새롭지 않은 소재를 자신으로 눈으로 해석하는 남다른 기량이 엿보인다. 시적 대상을 꼼꼼하게 묘사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어 호감이 간다. 그러나 시를 전개하는 데 몰두하다 보니 시인의 사유가 배어 들을 만들지 못한 게 걸렸다.

이정희 씨의 ‘신바람 수선집’은 유쾌한 동시적 작풍이 눈길을 끌었다. 수선집에 있을 법한 사물들이 마치 시구들처럼 명랑하게 움직이고 있어 흥미로

웠다. 다만 시를 마무리하는 후반부가 지나치게 작위적이어서 아쉽다.

최종심에 오른 작품 중에서 김옥진, 최영은, 문화영, 조희진, 이세빈 씨의 시들을 마지막까지 눈여겨 읽었다. 모두들 건투를 빌다.



안도현

- ▲경북 예천 출생
- ▲198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
- ▲1998년 제13회 소월시문학상 수상
- ▲우석대 문창과 교수

2014년도 제 22기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14년 2월 17일(월) ~ 12월 중순(약 10개월)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 교육시간 : 주간반(100명) 오전 9:00 ~ 1:20
- 야간반(100명) 오후 6:00 ~ 10:20

제출서류

-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판 사진 2매

※ 원서접수시 전형료 : 5,000원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마감일 : 2013년 12월 2일(월) ~ 2014년 1월 10일(금)
- ※ 토요일, 공휴일은 휴무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14년 1월 10일(금) 도착분에 한함)
- 원서접수처 : 본 대학교 교육원 교학처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전형 : 2014년 1월 13일(월) 오전 10시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TEL 062)605-1112, 1023 FAX 062)572-0264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전 | 문 | 방 | 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 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